

1996年度 行政事務監査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市民福祉委員會會議錄

城北區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保健所

日 時：1996年11月29日(金) 午前10時
場 所：保健所行政事務監査場

(10時44分 監査開始)

○委員長 權赫麒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성북구의회 시민복지위원회 소관사항중 시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96성북구 행정사무를 감사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국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曹宗希 (선 서)

○委員長 權赫麒 존경하는 시민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사업마무리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 및 보건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합과 동시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소

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曹宗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시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민복지위원회 권혁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이 보건소 현장까지 찾아주신 데 대해 고맙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96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保健所長 曹宗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주무과인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장.

○金榮植委員 김영식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전산화장비 추진사업이 왜 이렇게 늦었으며,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여기 자료에 나와있습니까라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구입할 때에는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산화 추진사업은 연초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전산화에 대한 사업지침이 작년에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지침이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하였고 올해에 적합한, 아주 적절한 사업지침이 11월달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자료준비와 전산화를 설치할 만한 기업에 대한 사업제안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그후에 자료를 수합해가지고 시방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입찰공고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자료준비와 가격조사가 다 끝난 상태이고 현재 입찰공고가 됐습니다.

어제 날짜로 입찰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자 선정하는데 좀 애로가 많았었는데요. 한 회사를 선정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우리 보건소 전산화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 3개업체중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데가 LG하고 콘스비이터라고 보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3개 업체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바 있었고 그후에 3개회사에서 제출한 가격 이랄지 제안을 기초로 해가지고 시방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장비 및 설치공사는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서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金榮植委員 현재 여기 보면 프로그램 및 장비가 프로그램이 늦어가지고 하반기에 구입한다 이런 뜻인데 사실입니까?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CD를 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내려왔고 그에 따라 일반 운영지침은 시달된 상태에 있습니다.

○金榮植委員 그러면 3개회사라는 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LG컴퓨터와 삼성전자, 콘스비이터 이 3개업체입니다.

○金榮植委員 3개 업체에서 공개경쟁입찰을 본겁니까?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아닙니다. 경쟁입찰은 열려있는 상태로 있고요, 모두 오픈(OPEN)돼 있는 상태고요, 우리는 3개 업체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반드시 제안설명 받은 회사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3개회사만 제안설명을 했다고 해서 3개회사한테만 입찰하도록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金榮植委員 아무 회사나 입찰할 수 있단다?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예. 다만 댐설치공사도 같이 하고 일정 정도의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회사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金榮植委員 그러면 12월달에는 장비가 완료됩니까?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예, 그렇습니다. 열흘간에 공고절차가 끝나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후에 며칠 이내로 내용절차가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로 장비구입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12월 안으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金榮植委員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은 언제쯤 완성될 것 같습니까?

내년 1월부터는 완성한 프로그램이 내려옵니까?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우리가 이것을 설치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육과 시험가동 및 일반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金榮植委員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시킬 계획입니다.

○金榮植委員 1월달부터입니까, 아니면 1월달에 거쳐서 2월부터 가동됩니까?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지금 이것이 계약을 하고 나서 3주안에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12월안에 설치하게 되면 설치와 동시에 사용자 교육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려면 사용자 전체 교육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완전히 설치된다 하더라도 교육이 있기 때문에 1,2월은 교육과 시험운영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인 가동은 3월경도로 기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榮植委員 전산화가 됐을 때는 혹시 인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프로그램 가동되면 말입니까? 시스템관리를 위해서는 전담공무원이 한사람이 시스템관리교육을 받아야 되고 전담해서 맡아야 됩니다. 그 외에는 일반 사용자들, 의사선생님, 간호사, 민원접수실 모든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익혀가지고 쓰기 때문에 전산가동을 위한 특별한 인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金榮植委員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전산화가 됐을때는 현 인원보다 감축이 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거죠.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우리 보건소의 사업은 서류철이라든가 행정업무를 위해서 있는 인원보다는 간호업무 또한 임상병리업무, 검사업무 이런 전문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많은데 전산화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조차 일반 행정업무랄지 정제업무에 투입돼 있어가지고 전문적인 업무에 인원이 부족한 듯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전산화가 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자료가 정리되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전문적인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시간이 절약되는 만큼 전문교육, 간호교육이랄지 이런 것을 강화하기 때문에 보건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일반 보건업무서비스가 훨씬 향상될

것으로 기약합니다.

○金榮植委員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驥 덧붙여서 묻겠는데요, 금년도 예산을 12월달에 집행하겠다고 하는 과장님 견해는 잘됐다고 보십니까?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12월달에 급히 집행한다는 자체는 그다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에 있어서는 전산장비에 대한 사양이랄지 또는 프로그램 내용이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완된 지침에 의해서 이 전산장비를 설치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낭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설치했다 할지라도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아울러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지침이 내려온 것이 11월 15일입니다.

지금까지 준비가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마지막지침이 내려오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가지고 지금 연말에 집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보건복지부랄지 이런데서 상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조속히 서둘러 가지고 연말에 이렇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驥 예산을 신청할적에는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하셨잖아요. 그런데 집행을, 예산을 세워줬는데 집행을 1년여 동안 놔뒀다는 얘기가 잘됐느냐 하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또 교육을 받고 실시하려면 3~4개월 또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잘못된 거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할적에는 철두철미하게 계획서를 세밀하게 세워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맞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赫驥 다음 안돈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安敦洙委員 안돈수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인력확보 차원에서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 또 이 분소를 설치하게 되면 인력은 확보가 돼 있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保健所長 曹宗希 안돈수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건분소를 하려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인력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분소에 전산화가 되고 하면 아까 김영식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어느정도 쓸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겠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보건소에서 했던 것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영양사라든가 상당히 많은 다른 직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해 가지고 지금 자원봉사 차원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정도 파트타임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영양사라든가 체육에 관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지역내 의사를 해서 전시간을 하루종일 일을 하는 사업을 여기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력 활용을 하고 또한 대학과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리부터 작업을 하고있는데요. 대학원생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대학에서도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쪽 인력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安敦洙委員 지금 보면 이 보건소 자체에서도 물론 장소가 협소한 관계에 있겠지만 인원도 부족한 관계도 있다고 보고, 그런데 이것을 꼭 보건분소에서 하면서 활용을 해야 하는지, 업무를 보면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어떤 단체장을 끼어서 건강 관리하는 그런 업체에다 맡겨서 하는 방법은 연구 안 해보셨어요?

○保健所長 曹宗希 지금 저희가 이쪽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 일반기업에서 실제 하기가 어려운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건파트가 이쪽에 많은 비중을 둘 예정이고 또한 노인들에 대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등록관리를 할 수 있는게 일반

○安敦洙委員 지금 물리치료와 한방진료를 각 복지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어떤 데이터나 목표를 보면 목표이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더 할 수 있는 양이 예를 들어서 목표가 1,000이었을 때 70%나 60%

했다면 어떤 시설이나 모든 기구를 확충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금 현재 이 목표를 봤을 때는 목표보다 더 달성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시설을 해놓게 되면 목표설정을 다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환자가 늘어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保健所長 曹宗希 지금 복지관에서는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비전문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구요. 저희가 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저희가 어떤 목표를 채우겠다는 숫자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좀 더 질적으로 향상된 그런 것을 제공을 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은 운영을 하지만 사실 그것이 완전 주는 아니고 노인들에 대해서 건강교육이라든가 그런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의식형태를 바꿔주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安敦洙委員 그러니까 교육정도를 하고 특수진료가 아닌바에는 꼭 분소를 차려서 하지 않아도 복지관이나 어떤 학교나 회관이나 이런데도 임시로 빌려서 교육할 수 있지않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목표설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매년 물어봐도 어떤 근거 인구비례해서 나오는가 환자비례해서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모든 업무가 100~120%, 120% 완전히 다 달성하고 있는데, 분소를 차려가지고 무엇을 더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목표를 했을 때 방문진료라든가 어떠한 목표를 보면 3,000에서, 추진현황 방문간호 3천명했는데 3,460명 했다 이말이에요. 목표보다 더 했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환자가 더 늘어나는 것인지, 어떤 차원인지 그 설명이 아직 이해가 안됩니다.

○保健所長 曹宗希 위원님 옳으신 지적인데 저희 통계자료같은 것이 확보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복지부라든가 시에서 하달식으로 저희가 보건사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향후 지역의료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통계

자료를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저희가 계획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安教洙委員 그러니까 분소를 설치하는데는 상당한 인력보장이나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그냥 지금 현재의 설명한 것 보다는 조금더 기술이나 또 정부차원에서 인력확충이 되어야 되고, 그 모든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인력이 모자라서 실행을 못할때는 막대한 구민의 예산에 손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이랄까 어떤 차원에서 우선 인원이 확충될 수 있는가 없는가 생각을 해서 분소를 설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保健所長 曹宗希 중으신 말씀인데요, 또한 지금 지역보건법이 시행규칙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 기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하고는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영양사라든가 이런 것이, 그러나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면 전체적인 보건소에 그런 인력등이 올 수 있을 것이구요. 아닌 경우에도 가능한한 인력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安教洙委員 이상입니다.

○金光植委員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만 하지 말고 지도과하고 의약과하고 합해서 하죠.

○委員長 權赫驥 제가 위원님들께 물으니까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를 통합해서 감사를 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를 총괄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이용섭위원님 하십시오.

○李龍燮委員 조금전 지소 문제를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예산이 8억 정도 내려와야 하는데 이것이 안내려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이 됐습니까? 내년도에.

○保健所長 曹宗希 사실 저희가 보건분소를

올해할 계획이었고 추경에 반영시켰고 원래 시에서 특별교부금 6억원을 주겠다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체 예산을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 지금 4개 보건소에 나눠줄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애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는 소액이 오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龍燮委員 내년도 예산안에는 구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保健所長 曹宗希 일단을 그렇게 하고요, 시에서 내려줄 경우 다시 시비로 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權赫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南孝委員 김남효위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에이즈현황 및 대책에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지도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성북구에는 타구 못지않은 감염자가 있다고 누구나 추측을 하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많은 지역인데, 문제의 감염자의 인권보호나 사생활을 보호하기위해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몇 명이나 성북구에 파악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현재 어떤 방식으로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나 계몽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올해 실시한 내용을 자세히 밝혀주십시오. 지도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에이즈의 전국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나와있는 표와 같구요. 우리 구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상 인원이 10명입니다. 여자 환자가 1명있고, 남자환자가 9명인데 현재 개별적인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리에 방역계직원이 전담하여서 매일 신상을 확보하고 상담 및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즈는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활형태를 주안점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일반적인 에이즈 홍보, 교육 이런 것은 에

이즈 연맹과 서울시의 예산으로 구청에 1년에 12회내지 그 이상의 횟수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2~3회 단체와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에이즈 홍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감염자 관리 기타 홍보, 교육, 캠페인, 이런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金南孝委員 모 단체에서 조사결과 과연 10명이 에이즈 환자가 10명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믿지않는 숫자거든요. 조금더 확실한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확산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光植委員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委員長 權赫麒 예. 김광식위원님

○金光植委員 쉬운말로 할게요. 88번지라고 하죠. 거기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지도, 관리합니까?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거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여성 건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과장님께서.

○保健指導課長 具明子 아까 인사드린바와 같이 11월 25일자로 초임 발령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모든 업무 파악이 다 안된 상태라서 답변이 아마 미흡할 것입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8번지 관리실태는 임균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혈청검사를 3개월에 한 번씩 에이즈 검사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金光植委員 거기 여성들 관리하는 대장있죠? 관리대장

○保健指導課長 具明子 예, 있습니다.

○金光植委員 다 볼 수 있어요.

○保健指導課長 具明子 물론입니다.

○金光植委員 그것을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건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타병원 에 의뢰해서 합니까?

○保健指導課長 具明子 이것은 전에 평화의원이라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화의원이 폐업이 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현재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주1회씩 나와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植委員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는 건강 검진을 가지않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保健指導課長 具明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金光植委員 그것은 과장님 얘기지. 사회에서는 통념적으로 그런 얘기가 공공연히 된 다니까요.

○保健指導課長 具明子 예전에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서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것이 시정이 다 되어가지고 검진을 안하고 그런 방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金光植委員 과장님은 얼마전에 부임하셨으니까 말씀드리기가... 저거, 한데 며칠전에 오셨기 때문에

○委員長 權赫麒 김위원님 말씀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는 없고요.

○金光植委員 소장님 그런 얘기 못들어요? 공공연히 사람은 안가고 보건증만 업주들이 받아 오는 것, 검진.

○保健所長 曹宗希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건증 같은 경우에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그런, 지금 현재 저희는 보건증 발급하는 병원이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저희 관내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지도 단속이 잘되고 있고 그런 문제는 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에 대해서는 88번지에 대한 검진은 그것은 분명히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金光植委員 그러면 거기가 사각지대가 아니고 안전지대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保健所長 曹宗希 그 문제는 자신있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사실 검진이 100%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아까 김남효위원님께서 에이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쪽에 어떤 행정력을 동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찰이라든가 위생과 같이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미성년자가 많다는

것은 위원님도 다 아실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검진이 충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가능한한 나가서 검사를 유도하는 방법외에, 사실 저희도 하고 싶지만 특별히 좋은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검사를 독려하고 또한 에이즈라든가 이런것에 대한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金光植委員 잘 알겠습니다.

○金珉奭委員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驥 김민석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金珉奭委員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물졌는데요. 지금 에이즈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홍보, 홍보 얘기하는데, 어데 매스컴에서 나온 것에 의하면 우리 성북구와 동대문구에 윤락업소가 있죠? 그런데 윤락업소의 600명을 조사한 결과에서 37%가 에이즈가 뭔지 모른다고 나왔습니다.

어제 한 번 들으셨을 거예요. KBS뉴스에 나왔습니다. 11시에. 그러면 윤락업소 600명 중에 35%가 에이즈라는 것을 모른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업소가 다른 지역도 아닌 우리 성북구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홍보를 했길래 35%가 에이즈를 모른다고 나왔습니다. 600명중에, 그다음에 거기서 약 5%가 본인이 에이즈에 걸렸다 하더라도 앞으로 윤락행위를 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다음에 600명 중에서 23%가 에이즈에 걸리면 바로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있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그렇다면 여태까지 보건소장님이 홍보책자도 나와 있는데 인쇄물을 통한 홍보 12회에 걸쳐서 8,800명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12회라는 얘기는 한달에 한번씩이라는 얘기에요.

830매 정도의 홍보물을 우리 구에다 뿌렸는데 어떻게 600명을 조사해서 37%가 에이즈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두번째는 뭐냐, 600명 중에서 여기 5%가 내가 에이즈에 걸려도 계속 윤락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소장님 항상 얘기가 뭐냐면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으면 뭐하냐는 겁니다, 보건소에. 홍보가 안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가 처음에 느꼈던 것이 뭐냐면 12회라는 것이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윤락업소가 우리 구가 아닌 제삼의 구에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북구와 동대문구에 윤락업소가 있는데 600명 중에 35%가 모른다, 그다음에 약 5%가 에이즈에 걸려도 계속 하겠다. 그리고 약 20몇프로는 에이즈에 걸리면 바로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번째는 뭐냐면, 홍보, 홍보 좋은 얘기 하시는데 건강교실 홍보를 보게 되면 텔레비전, 유선방송, 지역신문, 등등 나열돼서 참 좋은 얘기입니다. 누가 들어도 참 좋은 얘기인데 중복된게 뭐냐면, 케이블TV나 유선방송은 중복돼요, 이런식으로. 실질적이 아니고 팔목적인 것만 나열해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保健所長 曹宗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앙케이드 조사한 결과를 봤었는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속적인 보건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저도 현장에 여러번 나가서 봤습니다. 에이즈 교육할때도 봤는데 일단은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요, 계속 저희가 가서 하더라도 그사람들이 받아들이려는 입장이 조금 적다는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비디오를 제작한 것을, 저희가 자체 제작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업소에 세집에 한집당 에이즈 비디오를 저희가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읽는 것 보다는 그래도 보는게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개념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저도 그 외의 결과로도 문제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다는지 그런 것도 30몇프로가 되는 것을 보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의외의 결과를 보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더 거기서 일하는 여성에 대해서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단순히 그냥 책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라도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교육이 저도 필요하다고 절감을 하고있습니다.

○金珉奭委員 그러니까 열심히 하셨다는 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에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윤락업소가 제일 크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중에서 37%면 작은 수는 아닙니다. 10명중에 6명이 모른다는 겁니다.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 내가 윤락행위를 해서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에이즈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는 아무리 홍보를 해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가정주부의 37%, 여성중의 37%가 가정주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참 심각한 얘기에요. 그러면 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 내가 에이즈에 걸려서 나도 죽으니깐 같이 죽겠다, 같이 죽겠다는 얘기는 보복심리에요. 이런 식의 관심을 가져야 될 보건소장께서 에이즈를 확장시킬 수 있는 윤락업소를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 그 직원들의 37%가 에이즈를 모른다고 답변했으면 이것은 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保健所長 曹宗希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육을 할거고요. 그리고 좀더 자주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쪽의 여성들이 계속 순환이 되거든요. 항상 있는 사람이 계속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교육기회를 못가졌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본인 자신이 또 관심이 없었던 것도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에이즈 예방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金珉奭委員 에이즈의 문제점이 최대한 곳이니깐 최대 숙고해서가지고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保健所長 曹宗希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驥 질의하실 위원님? 안돈수 위원님.

○安敦洙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업소가 몇개나 되는지 알고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주1회 검사대상자 숫자하고, 3

개월에 한번씩 검사하는 대상자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업소가 몇 개라고.

○保健所長 曹宗希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근에까지 경찰서라든지 이런데서 받은 것은 250개소에 700명 내지 800명으로, 요즘에 윤락방지법하고 단속이 심하다는 이유로 조금 줄었다는 요즘의 추세고요.

○安敦洙委員 주1회 검진을 받는 숫자,

○保健所長 曹宗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주당 숫자는,

○安敦洙委員 1주일에 한번씩 검사를 한다면 검사를 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이거죠.

○保健所長 曹宗希 지금 현재 주당 110명 정도 되고있습니다. 거의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50% 정도 검진하고 있습니다.

○安敦洙委員 3개월에 한번씩 하는 사람은.

○保健所長 曹宗希 거의 비슷한 비율입니다. 50% 정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安敦洙委員 50%면 몇 명이나는 얘기죠.

○保健指導課長 具明子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에이즈 검사는 주1회 실시하고 있으나 매독검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3개월에 1회 실시하는 것입니다. 에이즈검사를 매독검사와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安敦洙委員 그런데 주1회 대상자가 몇 명이고 3개월에 한번씩 받는 대상자는 몇 명이나고.

○保健指導課長 具明子 그러니까 지금 88번지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성북구 관내 전체 대상을 말씀하시는지.

○安敦洙委員 88번지.

○保健指導課長 具明子 88번지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신검사는 주1회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安敦洙委員 몇 명이나고요, 대상자가 몇 명이나고요.

○保健指導課長 具明子 대상이 7~800명입니다.

○安敦洙委員 주1회 실시하는데 대상자는 7~800명이 되지만 1주일에 한번씩 검진하는 사람 숫자가 몇 명이나고요.

○保健指導課長 具明子 그것은 주 100에서

110명정도입니다.

○安敦洙委員 3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은.

○保健指導課長 具明子 혈청검사요? 그것은 미쳐 파악이 안됐는데요, 추후에 서면으로, 그것도 역시 100명에서 110명.

○安敦洙委員 100명에서 110명을 하면 몇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保健指導課長 具明子 그러니까 월 4회 내지 5회 되겠죠.

○安敦洙委員 1주일에 한번 하는 것은 4회 내지 5회를 하고 3개월에 한번씩 하는데, 몇 프로라고 생각해요?

○保健指導課長 具明子 지금 현재 800명이 백프로 다 관리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진료요원과 행정요원들이 합심해가지고

○安敦洙委員 800명에서 110명하면 몇프로라고요.

○保健指導課長 具明子 한 70%정도.

○保健所長 曹宗希 제가 지금 주당으로는 답변드리지 못하겠고요, 현재 총 건수로 생각하면요, STD같은 경우는 현 13,586명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700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1년 52주로 계산을 해보면 현재 44.7%정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혈청검사도 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1,050명을 실시했는데요, 10월까지. 평균계산을 해봤을 때 44%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安敦洙委員 그러면 50%로 친다고 그래도 업소가 250군데면 지금 현재 이 데이터를 어디서 누가 뽑는지는 몰라도 안가보고 어떤 차원에서 800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3,000명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3,000명에서 800명이면 몇프로입니까? 그러면 1/3도 안돼죠? 지금 보건소에서 집계하고 있는 것은 800명이고 내가 알고있는 것은 한 3,000명 정도 된다고요.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람들이 3,000명 중에서 800명, 800명중에서 50%면 400명, 그러면 아까 김민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모든 게 관리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한 3~40개 정도가 틀리지만. 거기에 종사자는 물론 꼭 일정보건소 직원처럼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들쭉날쭉 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거의 3,000명 정도인데 800명, 800명에서 그것도 45%면,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허술한 관리를 한다는 소리를 듣는거예요. 어떻게 해서 업소가 250개소인데 종사자가 800명이라는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온거예요, 이거?

○金南孝委員 보건증 소지자만 말하는 거예요?

○保健所長 曹宗希 보건증을 하지는 않습니다.

○安敦洙委員 누가 800명이라는 숫자를 책정한거냐구요?

○保健所長 曹宗希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安敦洙委員 해마다 조사전담반 예를 들어서 여성건강관리소 운영하면서 독려자있죠.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면 정확한 숫자가 나올텐데 이 수치를 매년 틀리는 것은, 이 사람 없어요? 여성건강관리소 이 사람 여기 지금 안나왔어요?

○保健所長 曹宗希 예. 보통 문을 늦게 열기 때문에.

○安敦洙委員 감사를 받으려면 그래도 어떤 수치나 적극적인 뭐가 나와야지 3천명되는 것을 800명으로 해놓고 다른 것은 100%, 120% 성과를 올리면서 수치가 명확한 것은 40%, 50%밖에 못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업무를 철저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치를 독려자나 보건소 종사자, 관리하는 사람들이 1/3정도를 한다는 것은 무관심속에서 그냥 데이터없이 전례대로만 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保健所長 曹宗希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역부족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安敦洙委員 열심히 하자는 것하고 감사를 받을 때 수치가 틀리는 것하고, 수치가 하나 둘 틀리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매년 해봐서 그렇지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란 말이에요. 보건소에서 에이즈 예방하고 관리, 모든 병이 발생할 수 있는 업소가 밀집해져있는 건데, 그러면 다른 곳 어디가서 분소 차려서 하는 것보다 관내 현재 있는 인원으로서 철저히 할 수 있는 것 모두다 하고나서 업무나, 인원이나 예산이 남았을 때 다른데 가서 분소도 차리는 것이

지, 지금 가깝게 있는 관할이 있는 업소도 수치가 못맞추고 50%, 40%하면서 지금 분소차리게 되어있느냐 이 얘기에요. 인력도 모자라고, 가까운 관할에 있는 그것도 중요한 것을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所長 曹宗希 그 쪽에 검사가 충분히 되지 못하는 이유가 미성년자가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그쪽에서 내놓지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安敦洙委員 안 내놓으면 단속을 해보면 알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거기가 출입금지가 아니고 누구든지 가볼수 있는것 아닙니까? 가서 보면 육안으로 250개~300개 업소가 있는데 가서 보면 몰라요. 거기는 거의다 표출을 해놓고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부터 수치를 못맞추니, 수치를 못맞추는데 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다른 것은 100%, 120% 업무를 추진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신경을 써야될 부분을 40%, 45%밖에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업무나 인력, 장비가 모자라서 못하는 실정에 분소를 하면 분소는 그냥 놀릴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保健所長 曹宗希 단속업무같은 경우는 저희 소관으로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찰이라든가 협조를 얻어서 좀더 열심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安敦洙委員 경찰에 업무협조를 받을 부분도 있지만 이 수치는 지금 보건소에서 파견나가 가지고 업무를 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기탄없이 자세히, 그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업무를 충실히 한다고 하면, 그럼 수치가 나와요. 그 수치가 나오면, 검사를 제대로 안하면 거기서 또 독려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부터 무관심속에 있으니까 1주일에 한번씩 검사하는 사람이 110명정도 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것이 '독려자가 대상자가 몇명이다'라는 것이 나오고 거기서 또 검진하는 실적이 저조하면 또 독려해서 검진을 해줘야 되지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保健所長 曹宗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히 관리하는 권한이 주어져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 자체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安敦洙委員 그것도 변명입니다.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관리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꼭 바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은 못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핑계로 답변하면 안되고, 수치나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나 조금은 해마다 봐도 수치가 안맞는 것을 그냥 지나가고, 그러니까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직원들도 있고 가서 인원과 약 못하고 업소과약 못합니까? 어저께 시민국에서는 도면까지 그려서 여기있는 이것까지 다 해가지고 있던데, 그러면 보건소장님 구청에 가끔 회의들어가시고 서로 정보 주고받고 해서 없으면 도면이라도 달라다가, 이것 할려는 의지가 안보이는 것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麒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감사준비가 미진하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서류제출요구와 또 제출 준비를 위해서 또 한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간30분동안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감사증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1시간30분 감사증지를 하면서 자료제출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요구하십시오. 예. 오영작위원장.

○吳榮作委員 오영작위원장입니다. 약품구입한 것 있지않습니까? 약품구입 구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방역소독기 15대 구입하셨죠? 그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환자의 진정이나 항의를 받은 내용이 있으면 그 일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은 오진관계도 포함됩니다. 불친절관계 포함해서 일지가 있으면 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 방역실태, 지도 감독한 내용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도 서류제출해 주시고, 환자를 가정방문해서 치료하는 현황있죠? 환자들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있다면 그것도 근

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관내의 정신질환자의 현황, 아까 자세히 보고를 해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정신질환자가 몇 명이나 있는가 파악을 하신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驥 또 다른 위원님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金榮植委員 적치물 관리대장 좀 해주세요.

○朴景錫委員 박경석위원입니다. '96년도 가정방문 진료내역인데 성북1,2동하고 동선동, 삼선1,2동 5개동 좀

○委員長 權赫驥 도합해서 정릉1동도 해주세요. 다 끝났습니까? 또 홍성진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洪性湊委員 보건소에서 11월달에 에이즈관련해서 홍보. 교육. 검진. 관리 16개 항목에 대해서 에이즈 관리점검표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작성했으면 에이즈 관리점검표를 제출해 주시고 근거자료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전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소독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성북구청이나 성북경찰서가 법에 의해서 소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실시를 안했다면,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벌금부과 또는 고발, 행정조치를 하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赫驥 다 끝났습니까? 또 김남효위원님.

○金南孝委員 2-7페이지에 보건소 이용자 월별 동별 파악이 이용환자 관리는 공개부분이 안된다고 했죠? 그러면 월별 동별 명단은 보건분소나 사업시행중이고 사업완료했을때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다고 하면 언제 연말에 가서 파악이 되는 거예요?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이것은 지금 만약에 파악을 하기위해서는 자료를 하나하나해서 수작업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시일이 걸립니다. 연 이용인원이 2만5천명 관리하는 것은 그렇구요.

○金南孝委員 제가 알고싶은 것은 지금 우리 관할내의 이용자수가 타구의 이용자에 비해서 몇%나 되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

다.

○保健所長 曹宗希 타지역이 한 10%정도 됩니다.

○金南孝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제십니까? 안제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본위원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간호직 30명에 대한 자격증여부와 이력서 또 전문의사 자격증 여부와 이력서, 그다음에 의료기관 병·의원 금년도 지도·단속 실적 또 약업소·약국·의료약품 판매소·의료용구·한약업 지도단속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병·의원에 대해서 특정폐기물에 대한 계약서, 병·의원 에 해당됩니다. 병원은 하나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병원을 하나로 알고있지 않습니다. 종합병원까지해서 시건장치가 되어있는지 여부도 아울러 해주세요. 특정폐기물 시건장치 설치여부, 특정폐기물 계약업소 계약서를 전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제시죠? 제십니까? 제가 모든 것을 받아서 97년도 예산 다루기전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요청 및 점심시간 문제로 1시간30분간 보건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증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1시간30분 감사증지를 선포합니다.

(12時09分 監査中止)

(13時45分 監査繼續)

○委員長 權赫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행정과, 지도과, 의약과 감사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준비된 것만이라도 우선 위원님들께 드려 주시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자료 준비된 것 다 드렸습니까? 아직 안된 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소장님?

○保健所長 曹宗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 같지 않습니다.

○委員長 權赫驥 자료가 미비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해서 빨리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해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大一委員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대일 위원입니다. 방문진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자료요청에 의하면 종암1,2동하고 정릉2,3,4동을 얘기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종암동 경우 96명이 나왔고 정릉 3개동의 경우 113명입니다. 물론 자료에는 동사무소 추천을 받아서 한다는 그런 지침을 얘기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 종암동 인구가 약 9만명입니다. 정릉의 경우 3개동이 9만명인데 그렇다면 제가 지역적으로 이것을 생각해 보고 이렇게 양쪽 질의를 하는건데요, 아무리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았지만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전반 행정책임자로서 인구에 비례한 형평의 원칙에 전혀 어긋나는 입장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96년도 홍보비가 순수한 간행물에 의해서 800여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물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업무 지침보고서에 보면 6조 현판 및 가로게시판 등을 만들었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밝혀주시고, 다음 세번째는 10월경에 우리 정릉지구쪽에는 엄청나게 모기가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보건소에서 방역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새마을지도자들이 상당히 애를 쓰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핏수는 분명히 다른 해에 비해서 많았던 것으로 하는데 어떻게 해서 10월경에 그렇게 모기들이 많았는지,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항의전화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반 주민들이 의심을 하기로는 약이 잘못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물을 섞어서 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검사결과 같은 것을 보신적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유인물에 보면 보건소 이용 주민들, 월별·동별자료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유인즉 보니까 보건소 전산화사업을 준비중이므로 파악이 안된다는 사실이 나와있는데 그것이 파악이 안된다면 어

떻게 전산화 준비가 될 수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다섯번째는 생화학 분석기가 5,3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섯번째로는 '96년도 업무자료에 보면 보건의료분야중 예방에 관한 교육이 취약한 분야를 파악하여 집중홍보를 실시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집중홍보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일곱번째, 성감별 의료행위 적발된 병원과 무단 진단서 발급된 병원을 밝혀주시고, 여덟번째는 요즘 산부인과 병원에 보면 미성년자 및 주부들의 낙태수술 환자가 엄청나게 몰린다 하는 그런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해볼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전국 유명 윤락가 중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월곡동이 제일 성병 감염자가 많았다는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중홍보라든가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열번째는 교통환자가 일정한 한 병원에 집중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麒 소장님이 답변 하시렵니까,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렵니까? 준비 덜 됐습니까?

○李大一委員 답변은 하고 싶은 분 아무나 하셔도 좋습니다.

○委員長 權赫麒 될수 있으면 해당 과장님이 전문과장님이시니까 소장님보다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더 세밀하게 답변이 나오지 않겠나 보고있고요, 답변 준비가 안됐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가 아직 안된 모양인데.

○保健所長 曹宗希 조금만 시간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아가지고요.

○委員長 權赫麒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중지할까요?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時56分 監査中止)

(14時11分 監査續開)

○委員長 權赫驥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및 과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曹宗希 보건소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고 좀더 자세한 답변은 각 과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방문진료는 인구가 많은데 비해서 방문진료가 적다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물론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숫자를 주지만, 영세민 책정된 환자들에 대해서 이것을 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영세민 책정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방문진료를 원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조사는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고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오는 것은 저희가 항상 신규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96년도 홍보비가 8백만원 책정이 된 것은, 저희가 현재 홍보물을 만드는데, 올해 보건본소를 만드는 계획과 맞물려가지고 조금 지연이 났습니다. 본소가 생겼을 때 저희 홍보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지연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하는 일이라든가 건강생활 길잡이 등이 현재 인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교현판 게시판에는 모유수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판을 게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릉에 10월달에 모기가 많아서 문제가 있지않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약품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여름 동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을 구입을 할 때는 저희가 약을 이미 품질허가를 받은 그런 약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날씨가 추웠을 때 빨간침 모기같은 것이 생길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파트라든가 지역적으로 일시적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면 그때그때 방역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 이용별 동별 자료가 현재 파악이 안됐고, 저희가 올해 자료를 수작업으로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저희가 대충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다시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성북구 외의 이용자가 약 10%가 되고 인구수에 비해서 동일한, 지금 현재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이용률이 높은 곳이 중암1동 그다음 중암2동, 길음2동, 월곡1동, 안암동 그다음 정릉4동 이런 순으로 현재 보건소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보건소하고 교통이 편한 쪽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화학 분석기를 이번에 구입한 것은 지금까지 생화학분석기가 시약 이런 것을 전부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이번 생화학분석기를 구입하고 나서 전부 자동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간기능검사라든가 기타 혈액검사를 수작업으로 해야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루에 할 수 있는 건수가 적기때문에 실시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은 저희가 매일 실시를 하고 검사항목도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96년도 업무자료중에 예방교육 취약부분에 대한 집중홍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안구보건과 구강보건에 관한 것인데요. 안구보건은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조기 시력검진 같은 것을 실시해가지고 실명예방차원에서 저희가 시력검사하는 것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처음하는 것을 취학전에 안구검사라든가 구강보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 실란트 사업과 맞물려서, 우리나라에 가장 문제되는 현재 충치예방검사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다음 태아 성감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태아 성감별로해서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태아 성감별에 대해서는 어떤 정확한 어느 정도 정보가 있지않고는 사실 저희가 찾아내기는 조금 힘든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진단서 발급한 것은 올해 한건이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에서 미성년자 낙태에 대한 것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낙태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의학적으로 꼭 필요할 때 아니고는 저희가 낙태를 하지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낙태수술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윤락가 설문조사 등에 성병 감

염율이 높았다는 것은 아까 안돈수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감염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99% 이상 치료를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차후 조치이기는 하지만 향후 그런 감염이 되지않도록 예방교육 등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번째 교통환자가 한 병원에 집중되는 사례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통환자라는 것이 대충 낮에는 교통사고도 있지만 밤에 교통사고가 많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야간에 진료하는 병원이 어느정도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그런쪽으로 아무래도 많이 가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大一委員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중암동하고 정릉하고 영세민 숫자를 보면 중암동이 몇배로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본위원이 볼때는 지역적인 문제로 매우 저조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중암동 경우 안구가 약 5만정도되고, 정릉2,3,4동 약 9만이 되는데, 훨씬 정릉쪽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뭔가 형평의 원칙에 잘못되어있다 그런 본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물론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할때는 뭔가 형평의 원칙에 잘못되어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홍보비에 8백만원을 썼다는 자료가 나와있는데, 육교현판 가로게시판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자료요청에는 전혀 없었다고 나와있단 말입니다. 이것 자체도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약물관계는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들었다고 해도 전문가가 아니고 전혀 모르는 입장이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약을 몰로 타서 뿌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아무리 좋은 약을 갖다줘도 어떤 좋은 용기를 갖다 준비하더라도 주민들이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한다면 전혀 우리는 필요없는 노력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면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전혀 확인된 사실이 없다는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얘기를 같이 해주셔야 되겠구요. 그다음에 보

면 작년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보건소에 홍보가 거의다 간행물로 대신되고 있습니다. 간행물로 대신이 되고있는데 중요 홍보라는 이런 것은 뭔가 영구성이 있는 그런 홍보쪽이 좋지않나 본위원은 작년에도 그것을 지적을 하였고 예를 들어서 동대문 같은 경우는 홍보하는 내용을 보니까 반드시 영구적인 예를 들어서 매월 첫째주에는 보건소에 가면 치과 진료를 한다. 두번째주에는 무엇을 한다. 주민들 뇌리에 박혀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전단에 보면 간행물로 대신하는 그런 홍보쪽으로된데 대해서 영구적인 홍보를 작년에 분명히 보건소장님께서 검토를 해보고 좋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에도 이런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교통환자가 물리는 것도 다른 병원에서 상당히 불편하게 그런 얘기들이 들어본적이 있는데 이것이 같은 병원인데도 집중적으로 물리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살펴봐주시고 뭔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保健指導課長 具明子 보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릉2,3,4동과 중암1,2동에 영세민수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진료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해서 의료팀이 방문해서 진료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동에서 저희한테 저소득가정은 384명 정릉2,3,4동에도, 중암1,2동은 21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거동불구자가 정릉2,3,4동은 113명, 중암1,2동은 거동불구자가 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팀이 항상 나가서 해주기때문에 여기에는 인구수와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정릉복지관에서 기타 환자는 순회진료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교현판과 모유수유 홍보예산은 구청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했습니다. 육교현판은 모유수유를 홍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8월6일부터 31일까지. 승덕초등학교앞에 “모유수유하는 아이 총명하고 건강하다”라고 현판을 내걸었습니다.

○李大一委員 가로 게시판은 됩니까?

○保健指導課長 具明子 가로게시판은 엄마의 젖, 엄마 사랑입니다.

○李大一委員 어디에 부착이 되었던 겁니까?

○保健所長 曹宗希 “엄마 젖 엄마 사랑”게시판은 인쇄물로 해서 80부 정도 인쇄된 것을 저희 관내에 있는 게시판에다 게시했던 것입니다.

○李大一委員 간행물로 만들어서 부친겁니까? 아니면 게시판을 만들어서 했다는 겁니까?

○保健所長 曹宗希 아닙니다. 간행물로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게시판에다 부착을 한겁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委員長 權赫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질문한 것 답변 남았어요? 충분합니까?

○李大一委員 게시판 관계, 그런쪽에 뭔가 영구적인 홍보방법 대책에 대해서,

○保健所長 曹宗希 사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몇군데를 생각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앞으로, 그것을 연초에 저희가 거론을 했었거든요. 저희 자체 내에서도 한번 했었고, 구청에서도 게시판 문제이기 때문에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건소것만 홍보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견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저희 미아로쪽에다 정광판이 생길것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활용을 해서 항상 주민들에게 가깝게 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올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李大一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權赫驥 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景錫委員 우선은 우리 보건소의 행정감사 수감태세가 제대로 돼있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감사가 일상 업무중에서 있는 일들을 감사하는 것인데 지금 답변 준비를 위해서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한 보건소 운영실태를 볼때에 불보듯 뻔한 것이 상당히 아까도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분들이 진료를 많이 하고 방문진료가 영세민에게 국한되기 때문에 아까 같은 자료를 보면 성북1동 같은데는 2명, 동소문동 같은 데와, 삼선1동 같은 데는 방문진료자가 없습니다. 거기에 영세민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물론 있겠지요. 물론 동장이 추천을 해서 한다고 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분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이며, 늘상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시다라는 보건소에 한번 오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왔는데, 좀 극하게 말하면 천대시 받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보건소 아닌 타보건소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는지요. 상당히 여러가지로 친절도가 사립병원 보다는 훨씬, 월등하게 잘 돼 있는 보건소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수감상태를 볼때에 직원 상호 호간에도, 소장님하고 과장님 모든 식구들이 상호 협조가 안되고 있어요. 물론 업무마다 소상하게 업무를 숙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바로바로 답변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불친절하다,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타나네요, 바로. 이런 것들이 시정이 돼야 되겠고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같이 보건소 분소 설치를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생활민원 때문에 성북구청에서 구청장이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형 버스라도 만들어서 시설을 갖춰가지고 간호사나 의사, 주사 놓 수 있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을 이동구청장실을 이용하는 식으로 지역적으로 운영한다면 구태여 우리가 큰 돈을 들여가지고 분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혹시 이런 데는 생각해보신 적이 있었는지 묻고싶고요, 홍보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식구가 적은 식구가 아니고 50만이 넘는 식구인데 홍보가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반상회보라든가 케이블TV로 본다,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되거든요. 이 홍보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법정전염병, 이런 정도는 일일

이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일본 뇌염이라든지 이런 법정전염병같은 것을 비디오로 해가지고 적어도 동사무소에 회의실을 이용해서라도 주변분들을 모아서 홍보한다든지 구민회관에서 민방위 교육하는 시간에, 짧은 시간이라도 홍보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을 하실 때는 소장님도 좋고 과장님도 좋고 메모지가 왔다 갔다 하지않게 담당직원이 평하게 해주시면 듣는 사람이 편하겠습니다.

○保健所長 曹宗希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감사수감태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저희가 친절도랄지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 나름대로 친절하게 하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더 노력을 하고 저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좀더 철저하게 해서 의식이 바뀌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분소 설치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동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건분소 계획과 맞물려서 청장실에서 청장님하고 토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동진료를 했을때 저희가 차량구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X-Ray가 부착된 그런 차량을 구입했을 때 약 2억500정도의 차량구입비가 드는 것을 저희가 조사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보건소사업을 하고 있는데서, 물론 저희가 다 다니면서 검사를 해주고 진료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과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 병·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 집밖에 나가면 병원이 거의 별로 멀지 않은 데 있는데 그런 차원의 것은 민간차원에 맡겨야 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연 이동진료를 나갔을 때 주민들이 그런 진료에 신뢰를 가질수 있을 것인가, 사실 옛날에도 이동진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그런 쪽보다는 건강증진차원, 그리고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행태에 대한 개선방향쪽으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소에서 하려는 일들이, 물론 저희가 영세민이라든지 저소득 주민들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보건소라는 것은 저희 관공서가 어떻게 보면 영세민은, 저희 전 주민의 50만 주민에 있어서 4,000명 정도의 영세민이 있는데 그쪽에 저희가 집중을 해서 일하는 것은 계속 하겠지마는 건강한 주민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주민도 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보건분소가 하는 사업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홍보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한번 그 방법도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그런 시청각실이 준비가 돼있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저희가 민방위 대원들 교육장이라든가 저희가 그런 곳을 다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틈틈이 저희가 위생교육이 있을때는 저희 보건교육도 가서 하고 저희가 어디든지 모이는 데가 있으면 항상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 주신 비디오 상영을 다니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디오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공급을 하고 또 돌아가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은 지금 현재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朴景錫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성북보건소가 되자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동진료도 마찬가지로 동사무소 회의실이나 이용해서 동민들을 모으기가 쉽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볼때에 우리 보건소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구급차량이 있습니까?

○保健所長 曹宗希 예. 앰블런스가 1대 있

습니다.

○朴景錫委員 그러면 엠블런스를 부르면 즉시 즉시 현장으로 가게 됩니까?

○保健所長 曹宗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119구급대하고 112구급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관계에 있어서 응급수송까지는 힘듭니다.

○朴景錫委員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119나 그런데다만 우리가 의지를 할 게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해야 하는 일 아니겠어요?

○保健所長 曹宗希 저희가 여건만 된다면 할 수,

○朴景錫委員 여건만 되면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예산을, 큰 돈을 들여가지고 꼭 분소만 설치하려고, 돈만 쓰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도 우리 민하고 가깝게, 또 민에게 덤벼서 찾아서 하는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保健所長 曹宗希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朴景錫委員 절대 필요가 없는 건 아니죠?

○保健所長 曹宗希 방법은 저희가 물론 직접 나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119 구급대하고, 보건소하고 연락을 하더라도 관내에 있는 병상, 이런 관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연계하는 방향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朴景錫委員 늘 반복된 얘기 같지마는 보건소의 위치가 너무나 치우쳐 있으니 많은 마음을 쓰셔야 할겁니다, 소장님께서도.

○保健所長 曹宗希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있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보건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일단 중장기 계획에다 넣고,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치우쳐 있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을 해소하고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朴景錫委員 일단 댔겠습니다.

○委員長 權赫麒 답변 다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榮植委員 병원하고 의원에 의한 특정폐

기물 적출물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2-21에 나와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대장이 나와있는데 한달에 두번씩 하는 모양이죠? 과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중부화성에서 가져갑니까?

○醫藥課長 黃元淑 예.

○金榮植委員 그런데 꼭 두번씩 하는 이유가 뭐니까?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일지를 쭉 보니까 한달에 꼭 두번씩 이네요.

○醫藥課長 黃元淑 적출물 관리 처리지침에 15일마다 한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金榮植委員 규정에 의해서 두번씩 하는거죠? 그런데 우리가 병·의원에 가서는 적출물 관리에 대해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醫藥課長 黃元淑 정기 의료감시를 하고있기 때문에 적출물까지 같이 봅니다.

○金榮植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쓰레기와 같이 나오고있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쓰레기 적출물하고 혼합배출한 사실이 없다고 돼있는데, 1년에 몇번이나 했습니까? 병·의원에.

○醫藥課長 黃元淑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무계에서 의료 지도 업소를 감시하고 있는데 우리 감시기준은 자율감시를 직능단체의 전문성을 살려서 자율감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감시를 하고 하반기에 우리가 집중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처리건수는

○金榮植委員 건수는 얘기를 안해도 되요. 하는 것만 얘기를 해주시고, 본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 병·의원, 성북구관내 병·의원은 전부 중부화성에서 다 하는지,

○醫藥課長 黃元淑 중부화성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金榮植委員 어떤업체 어떤업체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적출물관제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한 예는 언제언제인지 말씀해주세요.

○醫藥課長 黃元淑 적출물에 대해서 따로 감사하지 않고요, 감사를 할때 한꺼번에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력이 두명이기 때문에 다 감시

를 그저 한가지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시 실적이 약 400건 정도입니다. 업소는 의원은 북부화성위생에서 하고 있고, 치과하고 한의원은 도봉위생이라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도봉위생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적출물업체가 아닙니다.

○金榮植委員 '95년, '96년 각 1개소 시정 조치했다고 그러는데 어떤겁니까?

○醫藥課長 黃元淑 '96년도에는 ××산부인과 의원이라고 적출물 보관을 부적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처리지침에 있는대로 해야되는데, 다른 시설과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되어있지 않고, ……우리가 지적한 점이 있고, 95년도에는 성북 성신의원에서 똑같은 건이었습니다.

○金榮植委員 그러면 금년에는 지금 감독이 없습니까? 병원이나 의원에 대한 계획이?

○醫藥課長 黃元淑 지도 감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金榮植委員 특별히 적출물에 대해서 잘 지도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돈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安敦洙委員 평화의원이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保健指導課長 具明子 평화의원은 폐업되었습니다.

○安敦洙委員 언제쯤 폐업됐습니까?

○保健指導課長 具明子 금년 8월이라고 합니다.

○安敦洙委員 8월 맞아요?

○保健指導課長 具明子 금년 10월20일자 폐업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安敦洙委員 10월18일까지 평화의원에서 치료를 했고, 그 후에 안했으니까 10월20일날 평화의원 폐업한것은 맞는데 이 일지를 보면 얼마든지 수치라든가 모든 업소 도면까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월28일날 검진실시간내장을 각 업소에다 배부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매일 거기서 근무하면은 얼마든지 수치도 나오고 거기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냥 수치가 안맞고 또 진료하는 사람 수치도 안맞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

이 좋아졌는데, 똑같은 부분도 좀 있고, 이 혈청자하고 매독자하고 비임균성하고는 병의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保健所長 曹宗希 혈청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매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임균이라든지 이런 것 이외에는 다 통털어서 비임균성이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비임균성이라는 것은 일반 염증같은 것이 왔을 때

○安敦洙委員 그것은 전문가가 알아야 될 사항이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나왔었거든요. 6명, 2명. 금년에 할때 나왔었는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없는데요.

○保健所長 曹宗希 그것은 그다음에 계속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에 대해서 99%이상 지금 현재 치료가 다 됐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몇몇 작년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실했습니다만 올해같은 경우에 거의 99%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安敦洙委員 치료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2번에 걸쳐서 검진을 받았다, 또 아니면 보호차원이랄까 2번, 3번해도 병이 낫지않으면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 관리가 여기에는 안되어 있어요. 또 다른데 되어있는지 몰라도, 이 분이 하고 있는 업무는 이 소관 이것 정도만하고 관리는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保健所長 曹宗希 병원자체에서도 아마 진료기록부에 의해서 한 것이 있었고 독려하는 것으로서 계속하고, 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평화의원에서 진료를 갖고 있습니다.

○安敦洙委員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를 냈다고 하는데 설문조사에서 통계낸 숫자가 어떠한 것은 어떻게 했는지 기록한 것 있어요?

○保健所長 曹宗希 있습니다. 자료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安敦洙委員 자료준비해야 돼요?

○保健所長 曹宗希 곧 해드리겠습니다.

○安敦洙委員 이것이 병원에다만 관리하면, 환자라고해도 되죠 이 분들은?

○保健所長 曹宗希 예.

○安敦洙委員 이런 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면 보건소에도 관리 기구가 있어가지고 효능성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라도 관리가 되어야지 병원에만 있다고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保健所長 曹宗希 그렇게 하겠습니다.

○安敦洙委員 그런데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해야되는데 안하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麒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洪性湊委員 홍성진위원입니다. 아까 소독의 무시설에 대한 소독의무 이행 철저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성북구 관내에 소지하고 있는, 성북구청을 포함해서 5곳 관공서가 이 공문을 보고서 소독의무를 이행했다는 건지 안했다는 건지 그 사후에 대해서 나와있지 않네요, 어떻게 됐는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제가 이것을 11월6일날 5개 관공서에 대해서 소독의무대상 시설이므로 소독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12월6일까지 소독을 실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11월6일에 제의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洪性湊委員 그러면 지난 '96년5월10일날 성북구 보건소에서 관내 182개 소독대상시설에 대해서 소독의무 대상시설 지도 점검을 나간 사실은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예. 있습니다.

○洪性湊委員 그러면 그때 이 5개 관공서는 지도 점검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그때 당시는 경찰서 두개는 점검을 했었는데 구청은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洪性湊委員 구청은 소독을 안하고요? 경찰서 두 곳은 소독을 했다고요?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아니죠. 경찰서 두 곳은 우리가 점검을 했었구요. 소독이행여부를 점검했었고, 구청은 하지 못했습니다.

○洪性湊委員 이번 11월달에 공문이 나갔는데 이 다섯 관공서가 최종적으로 소독을 어느시점에서 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현행 법규상에 보면 2개월마다 한번씩

소독을 하게 되어 있고 2개월마다 한번씩 소독을 안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라든가 행정 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지금 없습니다.

○洪性湊委員 왜 부과 안하셨어요? 소독을 했기때문에 부과를 안한거예요? 소독을 안했는데도 부과를 안하신 거예요?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소독했는지 여부를 저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언제 소독이 이루어졌는지 조사를 못했는데 을 12월달에는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이행여부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등 기타 위법 조치를 하겠습니다.

○洪性湊委員 그러면 11월달에 지도점검 나갔을때 11월달에 소독의무 이행을 해달라고 협조 공문을 띄웠잖습니까? 그러면 11월 이후에만 소독을 했으면 그만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전에 2개월마다 한번씩 소독을 하게끔 되어있고,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어있는데, 그 이전에 소독 안한 부분에 대해서도 벌금이라든가 행정조치를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이것을 우리가 점검을 했을 때 1회를 안했을 경우 시정조치를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조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洪性湊委員 작년 12월달에 점검나가셨어요 안나가셨어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 공문에 나와있듯이 소독을 실시하여야할 시설에 대하여 장기적 정기적 방역소독 이행여부를 지도 감독함에 있어, 타 시설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면서도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할 관공서가 소독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고 있음에도 벌금부과조치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지않다는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는가? 또 우리 성북구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성북구청이라든가 성북경찰서, 중앙경찰서, 성북전화국, 월곡전화국, 오히려 행정을 수행하여야할 관공서들이 먼저 법을 지키지않고 소독을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뒤에 나와있는 성북구 192개 조그마한 여관이라든가 식당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앞장서가지고 이런

관공서부터 먼저 지도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 이행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과태료라든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건소는 모든 지도 점검 이행상태가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관공서에 대해서 소독의무이행을 지도점검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공서가 숙선수범해서 소독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처분등 위법 조치를 하겠습니다.

○洪性湊委員 그러면 5곳 관공서를 이번에 지도점검나가서 가지고 최종적으로 소독한 일자가 법에 정한 2개월이상 경과하였을 경우에 행정처분을 내릴 용의가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예. 있습니다.

○洪性湊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관리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는데요.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이라고 해서 연간 홍보계획을 구보건소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洪性湊委員 그러면 '96년도 홍보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드는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대체로 에이즈예방 및 홍보교육에 대한 것은 리프렛이랄지 또는 교육 강사료, 리프렛같은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제작해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잡혀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외에 우리가 관내에서 에이즈관련 홍보, 또는 가두캠페인 정도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1회 11월 2회에 걸쳐서 캠페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洪性湊委員 홍보실적에 보면 사진전시회 및 캠페인 6월달 하고 만화책자 7월달, 화장지, 팜플렛등 8월달 되어있는데, 이런 행사를 할 때 드는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이런 것은 다 리플

렛이랄지 홍보책자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작되어서 일괄 내려왔던 것입니다.

○洪性湊委員 그러면 구에서 세운 에이즈예방 홍보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리플렛을 수령해 와가지고 길거리에 돌리는 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그 외에 우리 구 계획으로서는 가두캠페인이랄지 특수 업태부 지역에 들어가서 집중 캠페인을 벌인 적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작성해서 저희가 집행했고요, 그외에 여기 돼있는, 위원님께서 가지고있는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약과에서 계획한 바와 우리 구에서 계획한 바를 복합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洪性湊委員 '97년도에는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으로 얼마 예산잡혀있습니까? 구체적으로.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에이즈예방에서 교육비는 시에서 일반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하지 않았고요, 그 외에 행사랄지 이런것을 위해서는 업무추진비 편성이 어느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사를 갖게되면 그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예산을 갖다가 쓸 수 있습니다.

○洪性湊委員 예산과에서 공통경비로 가져다 쓰나요?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예.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업무추진비에서 쓸 수 있습니다.

○委員長 權赫謀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석위원님.

○朴景錫委員 지금도 불임수술을 합니까?

○保健所長 曹宗希 예. 하고있습니다.

○朴景錫委員 보건소에서요?

○保健所長 曹宗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시술병원을 지정해가지고 시술교육을 받으신 선생님들에 한해서 그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朴景錫委員 지금 시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保健所長 曹宗希 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현재도 시술하고 있습니다. 정관수술, 난관수술과 자궁내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朴景錫委員 그런데 정·난관수술이 잘못돼 가지고 임신을 하는 경우가 없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保健所長 曹宗希 그랬을때는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朴景錫委員 후속조치라는 것은,

○保健所長 曹宗希 정신적인 피해까지는 다 보상하지 못하더라도 병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처리가 되고있습니다.

○朴景錫委員 그런경우가 있었습니까?

○保健所長 曹宗希 작년같은 경우 한 명이 있었습니다. 올 해는 없었습니다.

○委員長 權赫驥 안돈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安敦洙委員 설문조사 집계를 보면 계가 310으로 돼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수치를, 어떤 근거로 얘기하시는 건지,

○保健所長 曹宗希 설문지를 310명에 돌렸다는 것입니다.

○安敦洙委員 어떤 업소,

○保健所長 曹宗希 무작위로 했습니다.

○安敦洙委員 그것은 잘 했고요, 지금 자료요구에 보면 맨 끝장에 2-21, 약수터 및 급수시설 수질검사 현황 했거든요. 이것은 또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약수터나 여기는 관리하는 게 안돼있는데 이것이 보건소 업무입니까, 아니면 업무 외에 어떤 데이터로 나왔습니까?

○醫藥課長 黃元淑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수질의, 음료수적부검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음료수 적부는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여기의 6개 항목만 가지고 하고있습니다.

○安敦洙委員 그러면 수질검사 하는 게 보건소 업무예요?

○醫藥課長 黃元淑 예.

○安敦洙委員 보건소 업무면, 약수터라든가 우리 성북구민이 약수터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여기는 지금 10개소, 총계가 51개소 밖에 안나왔거든요.

○醫藥課長 黃元淑 우리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라든지 관리소라든지 문화재 관리소에서 우리에게 의뢰를 하는 것만 우리가 수질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의뢰하는 것만 검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나서서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安敦洙委員 민원이랄까 사업소에서 의뢰하는 것만 가서 검사를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적합판정이나 부적합 판정을 했을때 주민이 사용을 합니까, 안합니까?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적합하다고 판정했을때 하고 적합하다고 판정했을 때 주민 사용도랄까 호응도가 어느 정도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醫藥課長 黃元淑 일단은 부적합 판정을 하게 되면 사용을 못하게 되고 2번 이상 부적합 판정을 하게 되면 폐쇄해야 하는 것으로 음용수 법에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번 연속 부적합 판정받은 약수터는 우리 보건소 검사로는 없습니다.

○安敦洙委員 내가 볼때는 그게 있거든요. 부적합 판정을 했는데도 계속 사용을 해요. 습관이 돼있어가지고, 내가 몇 군데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산에 다니면서 봤는데 부적합하다고 써있다고, 무슨 성분표시가 돼있는데 그래도 거기를 계속 다니더라고요, 이게 폐쇄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조금 더 강압적이랄까 사용을 못하게끔, 그래야만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아니에요. 몇프로 몇프로가 다 써있어요. 그런데도 사용을,

○醫藥課長 黃元淑 사실은 우리가 적부검사를 하는 것인데, 관리가 사실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관리사무소에 부적합 됐을 때는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를 해달라고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安敦洙委員 그래서 내가 애초에 업무가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와서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이런 업무는 사실, 내가 처음에 물어본 것은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자료요구에 보면 잘 한 것 처럼 나와있는데 나중에는 또 본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만 해주고 뒷전으로 한다, 이것은 행정을 안하는 게 낫지,

○醫藥課長 黃元淑 일단 보건소에서 보고하게 돼있기 때문에,

○安敦洙委員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위임사무네요, 고유사무가 아니고, 위임사무중에서도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예요. 협조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려면 안할 수 있는,

○**醫藥課長 黃元淑** 그런 성격이 아니고요, 관리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安教洙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權赫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 용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龍鑾委員** 마약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병

원이나 의원에 마약단속 내지 단속실적이나

○**醫藥課長 黃元淑**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약을 취급하는 업소가 의료기관하고 2개 약품회사하고 약국이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목표가 687건에서 436건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마약에 관한 위반건수는 없습니다.

○**李龍鑾委員** 철저히 단속을 잘 했다는 얘기네요. 약국에서 청소년들에게 환각제라든가 무슨 신경안정제같은 것을 학교다니는 애들이 많이 먹고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신경안정제 같은 것을 왜 청소년들 어떻게 보면 과다복용을 해가지고 환각상태에 빠지는 것이 과다하게 메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이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醫藥課長 黃元淑**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각제라든지 항정신 의약품은 판매를 할 때 약국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적게 돼있습니다.

적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저희가 행정감시를 할 때 대장을 확인하기 때문에 남용하는 사례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李龍鑾委員** 그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그런 환각제나 그런 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가 없는데 그 외에 환각제가 나오는 것이 의약전문용어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많이 과다하게 못팔게 돼있는데, 조금씩 사가지고 본드식으로 아이들이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醫藥課長 黃元淑** 기침약 종류 중에서 그런 환각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품이 있

는데 현재 저희들이 감시를 잘 하고는 있지만 저희 관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약을 합부로 파는 약국은 없는 것 같습니다.

○**李龍鑾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연구나 계획을 세워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가지고 장기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방지한다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醫藥課長 黃元淑** 잘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驥**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榮植委員** 안돈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약수터 수질검사 현황으로 해가지고 북한산 관리사업소에서 온 것하고 서울측 관리사무소에서 한 것을 생활체육과에다 57개를 판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약사지도감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몇 번을 하는지, 분기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醫藥課長 黃元淑** 1년에 2번 하는 겁니다.

○**金榮植委員** 성북구 약국 수가 얼마나 됩니까?

○**醫藥課長 黃元淑** 약국이 295개입니다.

○**金榮植委員** 작년에 위반업소가 4개라고 했거든요, 4개중에 업무정지가 2개소고 과징금을 2개소가 물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醫藥課長 黃元淑** 지금 현재 의약품판매준칙위반으로 적발이 된겁니다. 이것은 소매가격인 3천원인데 2천원에 팔았다거나 이런 것을 적발한 건데, 여기서 업무정지가 나가는 건데 업무정지를 받는 분들은 업무정지를 하고 업무정지를 하지않고 자기가 과징금으로 하겠다고 하면 업무정지를 하지않고 과징금 납부를 하는 겁니다. 4개업소 중에서 2개업소는 업무정지를 했고, 나머지 2개업소는 과징금으로 했습니다.

○**金榮植委員** 혹시나 약사가 아니고, 약국에서는 약사가 제조나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약사가 아니고 그 부인이 팔았다든지 고용자가 파는 것은 없었습니까?

○**醫藥課長 黃元淑** 우리가 무자격자 조제판매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무자격자 조제 1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지적되어 있는 것을 집중감시하고 있습니다.

○金榮植委員 본위원이 알기에는 295개 약국중에 자기 부인이 대리로 약을 판다든지, 상시근무는 아닙니다만 그런 예가 사실상 많거든요. 성북구 같은 경우는 대한약사 회장님도 계시고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약을 본인들이 팔아야될 분들이 안팔고 부인이 판다든지 그외에 타인이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단속한 것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그러네요.

○醫藥課長 黃元淑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金榮植委員 의원이 제보해 주면 문제가 있죠. 그것은 그렇게 아서 가지고 그렇지 않게끔

○醫藥課長 黃元淑 앞으로 집중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榮植委員 그리고 자율지도단체와 합동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 말기면 적당히 봐주죠.

○醫藥課長 黃元淑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법대로 지침대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金榮植委員 글썄 아무리 지침대로 해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해서는 안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약사회에서하면 약사끼리 봐줄 수 밖에 없죠, 아무래도 봐줄것 아닙니까? 어지간한 것은, 크게 잘못아닌 다음에는 봐주겠죠. 그러지말고 우리 보건소에서 집중단속, 아까 말씀대로 소장님 지침 받아가지고 우리 의약과장님이 젊었으니까, 직접 몇분을 모시고 가서 수시로 감시를 해가지고 강력히 조치를 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醫藥課長 黃元淑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집중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榮植委員 예. 그래가지고 단속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약사가 아닌 분이 조제나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醫藥課長 黃元淑 잘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驥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서 감사중지 10분만 하자고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 소관 감사를 10분 중지하겠습니다.

(15時11分 監査中止)

(15時30分 監査續開)

○委員長 權赫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3개 과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근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任泰根委員 임태근위원입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95년도와 '96년도에 보건소에서 의료기구를 구입한 구입명세서와 구입한 회사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의료기구를 '96년도보다 많이 구입한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의료기구를 구입한 회사명을 한글로 표시해 줄 수는 없는가? 독일제와 미제로만 구입하였다고 나와있는데, 구입할 때는 한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을텐데, 독일이나 미국에서 구입하셨다고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50만 성북구민 건강을 위하여 우리 성북 보건소에 부족한 의료기구를 97년도 예산에는 다 메울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6년도에 방역소독기 15대를 구입하셨다고 하였는데 방역소독기 한대당 얼마에 구입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위원은 '95년도 감사시 삼선1동의 방역소독기가 자주 고장이 나 새로 구입해 줄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소장님께서 '96년도에 구입해 주기로 하였는데 '96년도에는 구입한 15대 방역기를 다른 동으로 나눠줬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에는 새로 편성된 예산에서 저희 삼선1동에 방역소독기를 구입해 줄 수는 없는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성북구에서 달동네가 아주 많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골목에 방역소독은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좋은 대안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저희 성북구에 유일하게 저희 삼선1동에 삼선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선공원은 나무가 아주 많습니다. 봄철과 여름철에

는 나무에 벌레가 아주 많아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매일 150명에서 200명 정도 이용하는 시민공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좋은 대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保健所長 曹宗希 보건소장한테 질문 해주신 것 먼저하고 그다음에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는 보건지소를 만들어서 필요한 의료장비를 육십억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내년도에 거의 구입할 예산이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96년도에 15개 방역기 구입한 것은 한대당 46만3천원에 구입을 해왔고요, 올해 15군데하고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올해 저희가 배부하지 못한 15개 동에 대해서는 방역기를 전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가 방역기가 고장이 났거나 했던 것을 저희가 전부 수리를 해 드렸고, 내년도에 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가능한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새마을 방역대원들에 대한 교육을 좀더 철저히 해서 약물의 희석방법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 좀더 교육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방역회수도 거의 작년이나 올해나 보름에 한번씩 가는 정도 수준이었을 겁니다. 내년도에는 주1회 정도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스케줄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선공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무에 있는 벌레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방역하는 약하고 수목에 하는 약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양고 공원녹지와 쪽에서 그 약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醫藥課長 黃元淑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와 '96년도에 의료기구를 구입하였는데요, '95년도에 구입한 것은 대부분이 치과기구입니다. 치과 발치용기구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지않고 이런 것은 불용기간이 지난 것을 우리가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95년도에 이런 것이 불용되었기 때문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의료기구가 많이 높아진 것은 새로운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치아 홈메우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구전색기를 구입하였고, 이 기계가 최근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올해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치과외자도 불용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 구입한 것이고 수납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전자동으로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구입한 것입니다. 독일제와 미국제를 구입한 것은 대부분 의료기구가 국산은 없습니다. 국산이 없기 때문에 독일제나 미국제로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구입한 것입니다.

○洪性湊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능이 좋다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醫藥課長 黃元淑 저희들이 아무래도 다른 치과나 내과 다른 개업하신 분이나 대학병원 이런 곳에도 문의를 해서 어느 곳이 좋은가를 자료조사를 하고 또 리플렛같은 것을 보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구입을 합니다.

○洪性湊委員 전적은 몇군데에서 받게 됩니까?

○醫藥課長 黃元淑 2~3군데에서 받습니다. 자료는 물론 많은 곳에서 조사를 하지만 전적서는 2~3군데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 대부분이 경쟁입찰을 하고 수의계약하는 것은 없습니다.

○任泰根委員 마지막으로 소장님한테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작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방역소독을 각동마다 열심히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 50만 주민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여주시고 우리 시민복지위원들은 아마 보건소 예산을 깎지않을 겁니다. 필요한 기계가 있으면 다 올려서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保健所長 曹宗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驥 박경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景錫委員 지금 인구가 2만정도만 되어도 동사무소에서 민원실에 대서를 해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민원편의를 위해서 그런거죠. 물론 인구가 50만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여기는 노인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민원실에 책상하나 놓고 또 우리 식구들이 은행에 가도 그렇습니다. 간부들까지도 돌아가

면서 민원 업무를 해주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보다 먼저 해야될줄 아는데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두번째로 여기 4층에 보니까 부정의료 신고 센터가 있어요. 신고센터라고 하는 것은 제일 아래 층에 뒤야 되지 않겠나, 왜 꼭 4층까지 올라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극히 일반적인 것이지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다든지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좀 해주세요.

○保健所長 曹宗希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 경우 주로 2층 내과에 있는 1차진료라든가 아니면 3층의 치과에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1층의 경우에는 보건증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노인분들이 오셨을 때 거의 기록할 사항이 없습니다. 의료보험카드만 내놓으시면 저희가 가지고 들어가서 다 기입해서 순서대로 불러서 진료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특별히 서가지고 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밑에서도 지금 저희가 민원안내 한명이 앉아있습니다. 필요하면 도와드리고 대개는 아래층은 보건증관계가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불편사항은 없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편사항이 있으면 좀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의료센터가 4층에 현판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4층에 있는 이유는 의약과에서 주로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4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민원들이 몰릴소지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1층에 부정의료신고센터 안내를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朴景錫委員 접수대가 있겠습니까? 아래층에. 접수대는 뭐 하는 거예요?

○保健所長 曹宗希 대개는 보건증 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보건증 하는 사람들이 적는 난이 많기 때문에 사진도 붙여야 되고 접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안내원을 비치해놔고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朴景錫委員 물론 안내를 하시지마는 너무 깊이있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건증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역시 관공서 출입을 많이 하지 않는 분들은 용지를 주고 써가지고 오시오 하면 상당히 부담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돼요. 이런 점을 생각을 해주십시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특히 어려운 분들,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런 데서 자기 욕구를 불만족을 삼고 그래서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동사무소에서도 내가 한글을 몰라서가 아니거든요. 대필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하셔서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保健所長 曹宗希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驥 임태근위원님.

○任泰根委員 방역에 대해서 아까 질문 못한 것을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달동네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에 방역소독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히 방역 취약지역은 주1회 연막소독을 하고있습니다. 대로가 아닌 골목길은 연막소독 차량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들고다닐 수 있는 휴대용 연막소독기로 골목 골목 소독하고 특히 그 지역은 연막소독 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은 분무소독에 많은 비중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주 1회 하던 연막소독 및 분무소독을 더 강화하여서 주1회로 분무소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예산에 반영할 것입니다.

○任泰根委員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저희 동네는 분무기가 없습니다. 달동네에서 왜 대로변만 해주고 달동네 사람들은 안해주느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예산부족은 올리셔서 봐주십시오.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예, 골목은 더욱 열심히 방역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景錫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까.

방역할 때 약품을 각 동에 배정을 하죠? 지난번에도 제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했었거든요. 이 약품을 배합하는 것을 잘못해가지고, 배합하는 농도를 잘못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분무소독 차가 지나가는데 파리가 더 즐겁게 놀아, 농담같습니까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파리, 모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소위 약품을 배합하는데 어떤 기술적인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데 약품만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 약품을 어떻게 어떻게 배합을 해야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가미가 돼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인이 직접 재직시에 그것을 한번 해봤어요. 월곡4동 쪽에서. 약품배합을 해가지고 해봤더니 그 뒷날 아침에 와서 보니까 다 죽어버린거야, 잎사귀가. 안 한 경우보다 못해요. 다 죽어버린 것 그렇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소독이면 소독이 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각 동에는 방역 약품을 지급하는데, 방역약품 지급현황은 원하시면 자료를 드리고요, 그 외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주축돼 있는 동자율방역단은 연4회에 걸쳐서, 특히 하절기 집중방역기간을 전후해서 연3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있고요, 배합자료는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비치해가지고 항상 참고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특히 분무소독 같은 경우는 다량지역에 주민도 살고있고 가축도 같이 살고있기 때문에 아주 고농도로 해가지고 일거에 다 파리, 모기가 다 제거될 수 있는 정도로 한다면 물론 사람에게도 피해가 좀 있고 가축에게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오히려 파리가 많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취약한 지역은 연막소독 보다는 효과가 좋은 분무소독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朴景錫委員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權赫麒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영작위원님.

○吳榮作委員 방역활동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까.

지금 방역활동은 보건소 자체에서도 하시죠?

일문일답식으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吳榮作委員 지금 자료에 의하면 조사자가 조사를 나갔는데 30개 동을 전체 조사를 했는데 1년에 한번 나간 데가 있고 세 번 나간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약품을 얼마나 썼느냐, 남았느냐 하는 것을 조사한 것 같아요.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그렇지는 않고요, 약품의 사용현황과 재고량도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비치하고 있는 기구 있겠습니까? 이 기구가 지금 적절한가, 관리가 적절한가 서부터 다 했고, 그다음에 약품관리대장도 조사를 했습니다.

○吳榮作委員 관리대장 일지 받아본 적 있어요?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일지를 저희가 받지 않고 나가서 일지가 비치돼있는 정도를 검사했는데, 지금 검사한 결과,

○吳榮作委員 그것이 기록이 하나도 안돼있어요. 조사를 했는데 약품만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썼는지 했지 일지를 비치하는데도 있고 하지 않는 데도 있고, 지금 어떤 데는 일지를 비치하도록 건의사항이 들어갔어요. 말이 틀리잖아요.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일지가 비치 안돼있으면 비치할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이번에 저희가 하반기에 전체 실태조사를 한 결과 모든 동에서 일지를 잘 비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吳榮作委員 비치하도록 건의한 것은 됩니까?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안돼있는 곳은 일지를 만들어서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吳榮作委員 지금 다 잘돼있다고 했어요.

행정과장님, 왜 위증을 하십니까?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안돼있는 데는 지금 상황으로는 안돼있는 데는 하도록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일지가 다 작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榮作委員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약품만 타갔지 그 약품을 버릴 수도 있고, 사용을 안하고. 또 여기 어느 지역은 봉사자가 없어 가지고 일을 못하겠다고 기록이 돼있어요. 건의사항에. 이런 동네를 지금 다 수량은 다 나간 것으로 돼있어요.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지금 봉사자가 동마다 어떤 동은 한 20명 정도, 그 이상이 있는 동도 있고 또 어떤 동은 5명, 이렇게 소수가

○吳榮作委員 과장님, 지금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기록을 보니까 봉사자가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건의사항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약품은 다 나간 것으로 처리했던 말이에요.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봉사자가 없다는 것은 충분한 봉사자가 없기 때문에 애로를 겪고있는 사항을 한 것입니다. 지금 최소 5명 정도는 자율방역단이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각 동이.

○吳榮作委員 지금 방역활동을 하는데 이것이 잘되는 데도 있고 잘안되는 데도 있겠습니까? 사실이죠? 맞습니까?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급한 약품과 사용량을 보더라도 방역단이 많은 수가 편성이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양의 한 반 정도도 사용하지 못한 동도 있습니다.

○吳榮作委員 그러니까 잘 안되고 있잖아요.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그것을 잘 안된다고 딱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吳榮作委員 잘되는 데도 있고 잘 안되는 데도 있겠습니까? 잘안되는 데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든지 그냥 방치하거나 그대로 묵인하시지 말고 국민 보건을 위해서 여기서 그쪽에다 지원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없어요?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지금 자율방역단은 자신들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야말

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吳榮作委員 그런데 잘못되는 데는 지원하는 데도 있느냐 이거죠.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잘 열심히 하도록 권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吳榮作委員 해본 적은 없어요?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吳榮作委員 권고는 했는데 권고해도 안됐을 적에는 지원한 적이 없느냐 이거죠. 직접 나가서 골목 골목 해준 적은 없느냐 이거죠.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우리 보건소에서는 당연히 지역에 대해서 자율방역단이 활동을 하든 안하든 열심히 우리가 기준에 정해진 대로 소독활동을 하고있습니다. 특별히 자율방역단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기준 대로 계속 해야됩니다.

○吳榮作委員 그것은 아까 도로변은 업무보고 할때 했잖아요.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도로변만 하지 않습니다. 골목 골목을 다 하고 있습니다.

○吳榮作委員 지금 차가 못들어가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들고 다닙니까?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그렇죠. 들고다니는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吳榮作委員 보건소 직원이 나갑니까?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예,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 골목을 맨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吳榮作委員 이거 확실하게 얘기 하셔야 돼요. 만약 그런 것을 허위증언하시면 고발을 합니다. 왜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잘 안되는 곳은 더 좀 잘해보자 하는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총체적으로 잘되는 데는 잘되는데 안되는 데는 또 안되는 것으로 보고가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솔직히 얘기를 듣고자 내가 질의를 했는데 그냥 변명 비슷한 얘기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톤을 높였습니다.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예, 안돼있는 동은 우리 보건소 인력으로도 충분히 방역이 되도록 항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保健所長 曹宗希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릴까요? 저희가 약을 지원을 하면서 일차분은 동일한 양을 줬고요, 그다음에는 그 사용량에 따라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곳은 좀 적게 주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 어떤 곳은 잘하고 어떤 곳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됐었고요, 또 저희가 지금 구청 전체에서 방법대원이 구청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요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못하는 문제는 적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吳榮作委員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역 방역활동이 조직이 돼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지도 감독을 잘 하셔야죠?

○保健所長 曹宗希 맞습니다.

○吳榮作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을 한 것으로 일지도 확인하시고 또 조사자가 나가서 사인도 하고 이런 것을 의원들이나 누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을 잘 하고 있구나, 실질적으로 하셔야죠. 약품만 조사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래 놔두면 폐기처분 돼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방역활동이 제대로 안되는 곳은 조사를 하셔서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방역을 해주시도록, 그래야 전체적으로 지역 방역활동대가 잘 구성이 되도록 신경 써주세요.

○保健所長 曹宗希 예, 알겠습니다.

○吳榮作委員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문진료를 하고 계시죠? 방문간호도 하고 계시죠?

○保健所長 曹宗希 예.

○吳榮作委員 그런데 어떤 동은 진료환자가 다섯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한 사람도 없어요. 또 간호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간호도 제일 많은 데가 79명인데 79명이 장위2동입니다. 그런데 한 분도 없는데가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保健所長 曹宗希 지금 방문진료는 저희가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가능한 분은 병원을 이용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동은 거동불편자가 없는 동은 안가게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전체적인 숫자가 대개 영세민하고 저소득층이거든요. 일단은 다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간호는 기본으로 하고 진료가 필요할 때는 또 진료팀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세대에 대해서 다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빠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吳榮作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없는 동이 12개동이 한사람도 없는데, 방문진료가. 여기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환자가?

○保健所長 曹宗希 아직 파악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吳榮作委員 없어요?

○保健所長 曹宗希 물론 100% 없다는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한테 진료를 의뢰한 환자가 없기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여기 방문진료에

○吳榮作委員 이것 어디서 접수받습니까?

○保健所長 曹宗希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요원 통해가지고 저희가 수요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吳榮作委員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것 중에다 지시를 잘못하셨든지 또는 이해를 잘못시켰든지간에 12개동에 환자가 신청자가 한사람도 없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곤란한데요.

○保健所長 曹宗希 현재 없는 동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파악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동담당 간호사들이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하고 계속 연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있지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방문진료를 하지않은데 대해서 좀더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吳榮作委員 지금 그렇게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방문진료 환자 수용능력은 얼마나 있습니까? 환자가 방문진료할 수 있는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요? 어느정도까지 소화할 수 있

느냐 이거예요?

○保健所長 曹宗希 지금 저희가 방문전담 간호사가 6명 있고, 의사가 있고, 간호차장이 있습니다. 기사가 하나 딸린 상황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거의 간호사 1명에 5개동을 다 가는 상황입니다.

○吳榮作委員 한사람이 몇분을 만나서 진료를 합니까?

○保健所長 曹宗希 저희가 지금 2주에 한 번씩,

○吳榮作委員 한사람이 나가서 하루에 몇분을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방문치료를.

○保健所長 曹宗希 저희가 방문진료나가는 날을 정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방문진료도 하고 순회진료도 하고 또는 예방접종도 나가고, 매일 방문진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두번 나가게 되는데요, 보통 한번 나갔을때 대여섯 집이나, 그 동별로 대개는 다니게 됩니다. 거리상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방문진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최소한 2주에 1번씩은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吳榮作委員 그러면 6명가지고 하신다고 했죠?

○保健所長 曹宗希 그렇죠.

○吳榮作委員 그러면 인원이 적어가지고 이것 안보는 곳 아닙니까?

○保健所長 曹宗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애를 쓰고있어요. 지금 방문진료환자가 지금, 아무튼 저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최소한 보름에 한번 정도는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고, 또 그 분들이

○吳榮作委員 소장님, 만약에 여기 12개동을 우리 위원이 조사를 해서 여기에 희망자가 있다고 동마다 몇사람씩 이든지간에 그러시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保健所長 曹宗希 저희가 능력이 닿는대로 가능한한 수용을 해야되겠죠.

○吳榮作委員 없다고 나왔으니까, 자료에.

○保健所長 曹宗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접

○吳榮作委員 이거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다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앞으로 다시 빠진 동에다 통보를 하셔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동의 형편에 맞게 일을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保健所長 曹宗希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동 사회복지사하고 연계하고 있지만 방문진료를 한 바가 없는 쪽은 저희가 좀더 신경을 써서 그 쪽에 환자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吳榮作委員 있습니다.

○保健所長 曹宗希 예. 하겠습니다.

○吳榮作委員 간호방문도 마찬가지로요. 이것도 빠진 동이 있어요. 어떤 데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한군데가 없는 데도 많아요, 간호방문도. 모르십니까? 빠진 데가 성북1동하고 동소문동, 동선1동, 보문동, 정릉1동, 길음1,2,3동, 장위1동 이렇게 빠져있습니다. 간호하는 분이 한분도 없어요. 이것 잘못됐죠?

○保健所長 曹宗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좀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吳榮作委員 잘못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답변 안하실겁니까? 그러면 방문진료를 하시는데 간호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나중에 문화서비스 그 분들이 봉사를 하시지만 그래도 그 환자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설문조사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있으십니까?

○保健所長 曹宗希 그것은 할 계획이 있습니다.

○吳榮作委員 그것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조금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洪性湊委員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驥 홍성진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십시오.

○洪性湊委員 방문간호사업과정에서 관리 환자 현황을 보니까 '96년도 1월 자료라서 확실치는 않겠지만, 이미선간호사같은 경우에는 25명 환자로 잡혀있구요, 또 김영자간호사같은 경우에는 143명이 잡혀있는데 왜 같은 간호사가 관리할 수 있는 환자의 숫자가 이렇게 차이나는 것이죠?

○保健所長 曹宗希 이미선간호사는 과업무를 보면서 환자를 맡는 경우에는 과업무가 어느정도 있기때문에, 너무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업무도 있기때문에 그런 경

우에는 환자수가 적게 되었습니다.

○洪性湊委員 그러면 성북구보건소 보건지도과로 왔다면 그 간호사라면 본 업무는 원래 행정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가정방문 업무라든가

○保健所長 曹宗希 적송합니다. 홍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洪性湊委員 방문간호 계획서입니다.

○保健所長 曹宗希 그 계획서가 1월달 것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희가 나중에 완전 전담으로 만해서 거의 비슷한 숫자로해서 여섯 간호사에게 나눴습니다. 그때는 8명인가 그렇게 될겁니다.

○洪性湊委員 1월달에 8명있었고, 편차가 나는 것 보면 가장 적은 관리환자와 가장 크게 나는 환자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네요.

○保健所長 曹宗希 그것은 지금 과에 있는 2명의 숫자가 아주 적을 것이고요, 나머지는 비슷한 숫자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6명으로 전담을 완전히 시켰습니다.과는 빼고요, 거기는 순회진료라든가 그런 쪽을 동반하고, 6명이 5개 동씩 나누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숫자가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거의 동일합니다.

○洪性湊委員 그러면 과거에 보건지도과에서 행정업무 보조업무는 누가 보고있었습니까? 간호사가 안본다면,

○保健所長 曹宗希 아까 홍위원님 보신것 중에 8명중에 2명이 과의 간호사입니다. 6명이 실의 간호사고, 그래서 같은 업무니까 조금씩 부담을 했던 것을 지금은 완전히 실에서만 방문간호를 하고 2명은 그냥 과의 업무만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洪性湊委員 2명은 그럼 완전히 소내에서 행정적인 업무만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保健所長 曹宗希 그런데 그것은 가정방문 할때만 얘기구요, 그외 순회진료같은 경우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갔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과의 간호사들이 그런쪽으로 많이 빠지게되죠. 그리고 소내에서도 특수진료를 한다든가 그런 보조를 한다든가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나머지 간호사들은 가정방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洪性湊委員 행정적으로 되어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 보건행정과로 되어있던데 나머지 의약과라든가 보건지도과에서는 행정적인 사무가 많이 많지않습니까?

○保健所長 曹宗希 저희로서는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구청 전체의 행정적이 모자라는 것도 있고, 저희도 가능하면 각 과에 행정적이 한사람 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洪性湊委員 보건지도과라든가 의약과에 행정적이 없음으로 인해서 보건지도과나 의약과에서 순수하게 처리해야 될 간호 방문사업이라든가, 의약 잔무에 있어서 지장을 받은 것은 사실이죠?

○保健所長 曹宗希 아무래도 간호사가 전문직이다 보니까 전문직 업무를 가장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현재로서는 사무적인 일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洪性湊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吳榮作委員 오영작위원입니다. 정신질환자 현황이 여기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접수 받으십니까?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保健所長 曹宗希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을 시작을 할때는 영세민을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영세민은 아무래도 숫자가 한정되어서 그것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나갔었고, 숫자가 처음에 76명에서 지금은 83명정도까지 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정신보건사업은 저희가 거의 2%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50만이라고 봤을 때 거의 천명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吳榮作委員 천명요?

○保健所長 曹宗希 전체적으로 따진다면요. 저희가 추측하기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저희가 영세민에서만 조사를 한 것이구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조금 확대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83명이라는 숫자는 영세민이라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때 아무래도 정신질환자다 보니까 감추는 경향도 있었기때문에 그것보다는 숫자가 더 많지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이외에도 치매라든지 알콜리즘 같은, 알콜리즘은 어느정도 포함이 됐습니다만 치매환자같은 경우는 빠진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吳榮作委員 지금 치매환자도 상당히 많습
니다.

○保健所長 曹宗希 그것이 숫자가 잘못된
사항이죠.

○吳榮作委員 알콜중독은 말할것도 없고, 이
것 다 수용할 능력은 있습니까?

○保健所長 曹宗希 저희가 전체를 수용하지
는 못하겠구요.

○吳榮作委員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절차
를 밟습니까? 영세민으로 봤을 때.

○保健所長 曹宗希 저희가 낮에 낮병동을
하는 것이 그중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저희가 관리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吳榮作委員 그러면 관리하지 못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保健所長 曹宗希 관리하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가정방문을 가고 있
습니다. 그래서 정신전문간호사와 함께 같이
가정방문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환자분들
이 있으시고요, 또한 그 분들이 병원에 입
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관리를 거부하
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이 재발
을 하지 않고 가능한한 정상생활로 복귀하
도록 저희가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같은 경우에 이 정신보건사업
이런 것이 1955년도에 시작된 사업이 저희
는 지금 첫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습
니다.

이것을 캐네디 대통령이 처음 시작했던
사업인데 지금 그런 것을 미국의 정신질환
자가 1955년 이후로 약70% 이상 감소되고
있는 그런 효과를 보고있는 사업입니다. 그
래서 저희가 지금 첫단계지마는 이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또한 내년부터 정신보
건법이 발효가 되면 어차피 저희가 의무적
으로 해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吳榮作委員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소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
금 정신질환을 앓다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재발을 해가
지고 심지어는 부모를 살해하는 사람도 있
거든요. 그러면 이 정신질환자 리스트가 있
습니까? 여기서 치료를 하든 병원에서 하
든 우리 관내에 정신병 환자의 리스트를
알고있어요?

어렵죠?

○保健所長 曹宗希 리스트는 조금 어렵죠.
그것은 환자의 어떻게 보면 개인사항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병원에다 환자
명단을 받아볼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일
단은 저희가 수합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써
저희 자체 등록을 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좀더
주민들 생각이 바뀌어서 이런 것은 보건소
에 도움을 청하면 된다 해서 자꾸 밖으로
끌어내야 되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신질환이라는 것이
얼마동안 약을 먹어서 이게 완치가 되는
병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리고 항상 고혈
압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평생 관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 공
공기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정신질환자들
이 재발이 돼야 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이
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吳榮作委員 지금 알콜중독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를 주로 가냐면
어린이 놀이터, 공원같은 데, 성북동, 동소
문동 동사무소 앞에 가보면 어린이 놀이터
가 있어요. 또 보문동 어린이 놀이터 가
고, 놀이터마다 그 사람들의 아지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상
당히 위협을 느끼고 그 길을 피해서 돌아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주위사람들 찾
아가서 행패도 부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러한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관리해줘야되
겠지만 파출소에서 하죠. 지금 이렇게 보
고내용을 보니까 너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여기서 지금 보고한 내용하고는 너
무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언제 조사를 해보십시오. 우리 성북 관내에
알콜중독자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를 조사를 하셔서 경찰에도 의뢰를 하시고
또 보건소장 이하 관계자들에게서도 잘 처리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保健所長 曹宗希 예, 저희가 지금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첫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자체도 여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 자체로도 교육을 많이 실시하겠고, 알콜 중독에 대해서도 좀 해보겠습니다.

○吳榮作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麒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洪性湊委員 지난 5월달에 온 공문중에서 에이즈 검사업무 철저라는 공문이 있더라구요. 내용중에 보면 보건소장은 추후 여타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렇게 돼있는데 주로 어떠한 내용입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醫藥課長 黃元淑 의약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에이즈 관련 시약을 각 구 보건소에 배부를 하게 되는데 올 해 복지부에서 시약에 대해서 제조회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이즈에 대해서 약13개 보건소에서 일단 약품수령을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洪性湊委員 거부한 것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까?

○醫藥課長 黃元淑 예, 그렇습니다.

○洪性湊委員 거부를, 보건소 차원에서 거부를 한겁니까, 아니면 소장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한겁니까? 예산이 드는 겁니까?

○醫藥課長 黃元淑 예산은 아닙니다.

○洪性湊委員 거부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醫藥課長 黃元淑 일단은 시약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사용을 할때, 실무자들이 사용을 할때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약간 다른 시약을 써야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거부를 했습니다.

○洪性湊委員 그러면 담당직원이 알아서 판단해서 거부를 한건가요, 아니면 결재가 나가지고 거부를 한건가요?

○醫藥課長 黃元淑 이것은 결재하는 게 없고 약품을 타러가게 돼있습니다. 타러 간

그 자리에서 아마 즉흥적으로 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洪性湊委員 그러면 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검사의 편리성만을 내세운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불이행한 행위로써 관련 직원을 엄중 문책,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약품이 바뀐 것이 문제가 된거예요, 아니면 거부한 것이 문제가 된 겁니까?

○醫藥課長 黃元淑 약품이 바뀐 것을 약품을 수령하러 가서 안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아마 즉흥적으로 거부한 것 같은데 약품 바뀐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洪性湊委員 거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요?

○醫藥課長 黃元淑 거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洪性湊委員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醫藥課長 黃元淑 그 직원을 훈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洪性湊委員 그러면 거부를 한 게 직원 개인의 일이었나요,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알았던 일인가요?

○醫藥課長 黃元淑 약품을 수령하러 간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자기가 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도록 결재나간 것도 없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洪性湊委員 공문상에 보건소장은 추후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라고 했는데 보건소장은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保健所長 曹宗希 지금 일단 에이즈 시약을 그전에는 수령을 해온 것으로 알고있고요, 복지부에서 무료분으로 검사시약을 주는데 복지부 자체에서 하부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그런 시약을 구입함으로써 보건소에서 불편이 생기는 것을 너무 고려를 하지 않았다 해서 검사실에서 아마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주민들을 위한 에이즈 검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거부한 것은 일단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원인들에게 어떠한 불편함이 없도

록 저희가 불편하더라도 당연히 저희가 검사시약을 접수를 했고 사용을 할것입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洪性湊委員 조금 전에 박경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보건소에 대한 불친절도, 직원들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태도, 또는 보건소 내부에 근무기강 문제, 이런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그런 문제들이 불거져나오므로 인해가지고 위에서 내리는 약품, 예산이 드는 약품이 아닌데 가서 수령하라는 것을 직원들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하고 달라진다고 해가지고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보건소에 대한 결재, 상관에 대한 결재도 받지 않고 멋대로 거부를 하는 행위가 벌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보건소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하여튼 보건소장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曹宗希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간호원 자격유무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직원 현황을 주셨어요. 간호6급이라고 합니까, 직원6급입니까?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간호6급입니다.

○委員長 權赫驥 자격유무를,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보조원이나 이것을 묻는데 이것은 급료나가는 급수를 얘기한 것이지 간호사, 간호보조원, 등등 용어가 다른데 월급 대장에 월급주는 급수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간호공무원은 서울시에서 일괄채용을 했습니다. 그 일괄채용함에 있어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시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자격증과 그와 관련되는 관계서류는 서울시 또는 우리 구청에서 일괄관리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직에 대해서는 그 자격증,

○委員長 權赫驥 과장님, 본인이 자격증 사본을 내는 것이고 원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본은 이력서하고 첨부해서 거기다 내는 거고, 원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지, 그렇잖아요?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그렇죠.

○委員長 權赫驥 그런데 왜 만소리 하고 있어요?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지금 그러면 각 간호사들한테 그 자격증을 가져오라고 해야 되는데,

○委員長 權赫驥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비치해놔야 원칙 아니에요. 이력서하고 간호사 자격증 사본을 비치해놔야 원칙이죠. 그것을 뭐 각자한테 가져오라고 해요? 행정서식도 모릅니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행정과에 비치되어있어야만 원칙입니다.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간호사 자격증하고 이것은 저희가 비치하도록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전문직 의사에 대해서는 자격증과 기타 관련서류를 저희가 비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간호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괄인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權赫驥 서울시에다 미를 게 아니라 성북구 보건소 얘기를 하고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아무나 내려보내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채용해서 쓰는 겁니까?

그다음에 의사 면허증에 대해서 의료법 제5조를 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십니까? 봐야 알겠습니까, 과장님?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죄송합니다. 의료법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委員長 權赫驥 의사면허증이 각 치과면치과, 내과면 내과 그렇게 나오는 것이 있고 그냥 의사면허증으로 나오는 것이 있고 2가지입니까?

○保健所長 曹宗希 의사에 대한 면허증이고 그다음에 전문의에 대한 내과라든가 외과 이런 것은 전문의 자격증이고 의사 면허증입니다.

○委員長 權赫驥 자격증이 우선입니까, 면허증이 우선입니까?

○保健所長 曹宗希 면허증이 우선입니다. 면허증이 없이는 전문의 자격증을 딸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權赫驥 전문자격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保健所長 曹宗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의사면허시험을 봐서 따는데, 의사면허증이 되면 일단은 일반의사가 됩니다. 어떤 과를 따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좀 더 세분화 돼서 트레이닝을 받은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과에 대해서 더 전문성이 있다면 전문의 자격을 주는 겁니다.

○委員長 權赫驥 내과의사가 성형외과를 냈어요.

○保健所長 曹宗希 상관없습니다.

○委員長 權赫驥 소아과 의사가 성형외과를 내도 상관없습니까?

○保健所長 曹宗希 예.

○委員長 權赫驥 아무 진료라도요?

○保健所長 曹宗希 예.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성형외과든 내과든 외과든 의사로서 진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판을 써붙일 때는 그 사람이 내과전문의를 가지고 있을 때는 내과의원이라고 붙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내과의사로서 성형외과를 진료를 했다고 그래서 성형외과의원이라고 붙일 수도 없습니다.

○委員長 權赫驥 그러면 병원하고 의원하고 다른 것이 됩니까?

○保健所長 曹宗希 병원은 병상수에 따라서 저희가 대개 구분합니다. 진료과목하고.

○委員長 權赫驥 진료과목하고? 의원에 지금 의사자격하고 의사면허증하고 다르기 때문에 의원마다 과목이 전부 4개이상씩 간판 써붙여있죠?

○保健所長 曹宗希 진료과목을 저희가 정하는 것은

○委員長 權赫驥 그렇게 치료하고 있죠?

○保健所長 曹宗希 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權赫驥 할 수 있어요?

○保健所長 曹宗希 예. 의사로서 하는 겁니다. 전문의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의사로서 하는 것이라고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면허증을 딴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대학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은 의사로서

활동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사면허증이 있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權赫驥 그렇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환자가 골절환자가 내과전문의 아닌 의사면허증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치료받으면 될까요?

○保健所長 曹宗希 물론 그 전문의만큼 고급기술의 진료를 받을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委員長 權赫驥 과장님, 의료보호법 제5조 좀 읽어주세요. 책자왔습니까? 과장님 의료보호법 제5조라는 것 아직 안 읽어보셨습니까?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의료보호법 제5조를 읽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제5조-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외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거쳐 그 면허를 할 수 있다.

제1호, 의학 또는 치과의사의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자 또는 치과의학자의 학위를 받은 자, 2, 한방의학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의 자격을 받은 자, 3,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 이들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權赫驥 예, 의사면허증이 그렇죠? 치과, 한의사,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아니죠,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까지 다 포함입니다.

○委員長 權赫驥 그래요? 이것은 답변해주셔도 좋고 안해주셔도 좋아요. '74년9월24일날 보건사회부장관이 면허번호 제7710호로 내준 박제이씨 현재 여기 근무하죠? 생년

월일이 39년10월15일생.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權赫驥 현재 연세가 57세죠? 맞죠?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맞습니다.

○委員長 權赫驥 22살에 의사면허증 딸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전문대 나오면 됩니까?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74년도의 면허라면 25살에 해당되는데요?

○委員長 權赫驥 계산해 보세요. 22살이잖아요?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25살입니다. 만 25살이 되겠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서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나이입니다.

○委員長 權赫驥 면허발행일자가 '74년이고 생년월일은 39년이에요?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만 25살에 의사면허를 받은 것입니다.

○委員長 權赫驥 22살이 아니고요?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보통 우리 나이로 26~27살 정도입니다.

○委員長 權赫驥 22살 아닙니까?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만으로 25입니다.

○委員長 權赫驥 그다음에 2-20페이지 보시면 95,96년도 의료기구 구입명세서 단가, 의료기구회사명이 있습니다.

회사명이 지금 생산회사명이냐? 구입회사명이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保健所長 曹宗希 생산회사명입니다.

○委員長 權赫驥 구입처는요? 생산업체하고 직접 계약했습니까?

○保健所長 曹宗希 구입처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청진기같이 5만원정도는 수의계약으로 하는데요, 나머지는 전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委員長 權赫驥 아니, 공개경쟁이 아니고 여기 회사명을 독일, 미국 이런 식으로 했는데 구입회사명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어디 회사에서 미국에서 샀다는 얘기입니까?

○保健所長 曹宗希 거기 제품이라는 뜻이고

요.

○委員長 權赫驥 구입회사명을 써야 원칙이죠.

○保健所長 曹宗希 의료기구 구입처를 저희들이 다시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權赫驥 구입회사명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의약품이고 의료기구이고 간에 지금 보건소에서 공개입찰식으로 한 것 있습니까?

○保健所長 曹宗希 거의 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權赫驥 거의 다라고 하면 어느 한계까지 입니까?

○保健所長 曹宗希 저희가 보통 한 20~30만원 정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요, 나머지 백만원이상 넘어가는 것은 다 공개경쟁입찰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權赫驥 수의계약하는데 보통 두군데 이상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내정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保健所長 曹宗希 그렇죠.

○委員長 權赫驥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保健所長 曹宗希 그렇게 했습니다.

○委員長 權赫驥 했다고 그러는데 재차 묻는 것은 견적서가 2개가 비치되어야 되는데, 1개 비치된 것은 없습니까?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견적서는 2개이상 비치되어 있고요, 그외에 필요한 사항이라면 담당공무원이

○委員長 權赫驥 견적서가 비치되어 있는데 그 회사 지금 감사끝나고 가서 두군데 양쪽에 납품업체, 아닌 업체 한번 물어볼까요?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말씀을 하신다면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委員長 權赫驥 자료제공해 주세요. 물품, 약품 또 의료장비 전체를, 아까도 제가 자료요청한 것 아직 하나도 일부 3건만 들어오고 안올라왔어요. 그것은 감사끝나고 난 뒤 올려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전

반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時34分 監査終了)

○参席委員 12人

權 赫 騏	金 南 孝	金 光 植
金 珉 奭	金 榮 植	朴 景 錫
安 敦 洙	吳 榮 作	李 大 一
李 龍 燮	任 泰 根	洪 性 濤

○缺席委員 1人

崔 哲 模

○参席公務員

保 健 所 長	曹 宗 希
保 健 行 政 課 長	嚴 蓮 淑
保 健 指 導 課 長	具 明 子
醫 藥 課 長	黃 元 淑